

제 166 호

연중 제 2 주일

1976. 1. 18.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감 론]

메시아를 찾으려 갑시다!

이 수 현 신부

수천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 오직 사랑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 조용히, 고요속에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다. 세상은 이걸 몰랐다. 이스라엘도 몰랐다. 다만 몇몇은 종의 영혼들만이 알아 차렸다. 그러나 메시아의 숨결은 세상에 파스한 정감을 불어 넣어 주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변혁의 시발적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러나 세상은 눈 뜨고도 그분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요한은 무릎 꿇고 부르짖는다. 그분이 오셨다고.

하나 요한은 세상의 눈에 얼빠지고 미친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래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며 애써 부르짖는데 피곤을 모른다.

어린 양의 뜨거운 사랑과 숨결은 소박하고 천대받는 영혼을 마치 당신이 세상에 오실 때 처럼 조용한 가운데 꿰뚫고 있었다. 순진한 이들은 가눌 수 없이 고통치는 가슴을 안고 그의 뒤를 따른다. "그분이다! 메시아다!" 마치 일생동안 산삼이나 석유맥을 찾던 사람들 처럼 환호성 높이며, 스스로 놀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조용한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진다. 못배길 정도로 두근거린다. 그분께 안 갈 수 없다.

"어디 계시니까?" "와서들 봐라" 메시아와 요한의 두 제자 사이의 웃음 최초의 말 건넌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뒤 따랐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따라갔다. 이것 저것 계산할 것도 없었다. 무조건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인생관, 세상관... 다 달라진다. 고기잡이가 문제가 안된다. 그저 그분과 같이 있으면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분의 입에서는 양식이 쏟아져 나오는 판이다. 안 가겠다고 슬퍼할 것 없고, 못 배웠다고 기죽을 것 없고, 권세권력 없다고 꿀릴 것, 없게 되었다. 그분은 맨주먹으로 오셨지만 모든걸 다 갖고 계시다. 세상이 중적하자 못해서, 못배 먹어서, 눈 멀고 귀머거리라 옆에 지나가셔도 알아 보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주인이시다.

두 제자는 그분을 알아보는 달렌트를 받았다. 달렌트는 그렇기 위해서 주어진 것. 너에겐 이런 달렌트가 없느냐? 있을거다 찾아보면 있다. 메시아도 많다. 우리 주위에 많다. 헌데 용기없고 마음없어 탈이다. 메시아를 찾아보자. 그리고 같이 지내보자! 세상이 달라질거다. 마음이 불덩어리가 될거다. 너나나나 오래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그러질 못했다. 지금 부터라도 눈씻고 찾으려 한다. 메시아를 찾으려 나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균중신부-경북 영천읍 고천동)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 기도서 P 329

(1) 개회식

□**입당송**은 땅이 당신 앞에 굽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사무엘 3,3-10.19 경향잡지 p 87)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나이다.

□**창계송** ◎ 보소서 이 몸은 당신 뜻을 따르기 위해 대령했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당신이 이 몸을 굽어 보셨네/당신은 내 입으로 새로운 노래를/우리 하느님께 송가를 부르게 하시었네. ◎

□**제2독서** (고린도전서 6 : 13-15.17-20.성서 p.379)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 : 35-42 성서 p 204)

어디 계시는지 알아보고 그와 함께 머물렀다

□신자들의 기도

1,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철부지이오니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의 깊은 뜻을 알아듣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

2, 진리의 생이신 천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머리가 둔한 자들이오니 성신을 보내사 우리 머리를 비춰주시며 차가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

3, 인자하신 천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들의 앞길을 밝혀주소서 항상 당신의 뜻을 좇아 나날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내 앞에 상을 차려 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오다.

숲 정 이 산책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외롭지 않은 세상을 살립니다

양 병 호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스쳐버리기에 너무나 서글픈 날들이었지요. 세상은 온통 캄캄했으며 물거품같은 인생의 절규 속에 한없이 세상을 울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느 낯설은 처마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던 날들! 정녕 사형선고를 받은 체념, 그것이었지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명은 가슴 달래며 석양길 황혼 속에 처참한 인생의 기로를 헤매는 나그네 길! 기다림과 반겨주는 이 없는 세상을 그저 살아있다는 의식 속에 이어가는 생명! 나환자! 그것이 전부 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항상 돌보아 주시니까요. 그것은 정녕 주님의 따스한 어루만짐입니다. 복음서에 나환자를 깨끗이 하여 주시던 주님의 그 손길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풀어진 것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제 환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오랜 병문의 시달림 속에서 현대의학이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사회에서는 환자를 위한 나병의 날(구라주일)을 제정하고 위로와 격려로 그날을 외롭게 지내게 해줍니다.

당초에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고고의 울음소리와 함께 온 집안의, 그리고 이웃의 즐거운 축복을 받으며 귀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는 행복의 극을 맛보고 또 어떤 이는 병들어 시들기도 하지요.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섭리라면 정녕 우리들 정착 사업장에 응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험 속에서 풀려나 사랑의 극치를 맛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척대고 남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온 몸의 힘을 전부 동원해서 자립의 터전을 이 땅위에 세우고자 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온몸의 힘과 합하여 궁지 속에 살아가는 집념을 기르렵니다. 몇몇한 사회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바랄진대 피와 땀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도 세상은 멸시와 저주를 주는 매정함이 있습니다.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교육의 심각한 슬픔이 있습니다. 말로는 음성환자라고 위로하지만 그실 경계하는 것이 있

으니 첫째 아동교육 문제입니다. 쪼들리는 살림도 문제입니다만 그 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가까운 예로 고창에 있는 동혜원의 경우, 몇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없어진다면 코담을테의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나환자의 자식들과는 함께 공부시킬 수가 없다고 공학을 반대합니다. 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회의 인정이지요. 때로는 "우리들의 죄가 너희들에게까지 미치는구나"하는 탄식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동혜원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김제의 비룡농원(신암공소), 함열의 상지원, 삼례의 익산농원이 모두 똑같은 운명입니다. 제발 이 어린씩의 몸을 꺾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일들도 많지만 그만 두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먼뚝튼 이 새해에 각성을 하렵니다. 슬픈날의 경험을 거울삼아 몇몇한 삶을 찾으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참다운 인생으로서의 길을 가렵니다.

끝으로 여기에 옥심을 부린다면 익산농원의 공소 건립 문제입니다. 숲정이가 여러 차례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듯이 공소짓기에 애태우는 나환자촌의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시어 도움의 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고마우신 도움이 담지하였으나 부족한 금액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바라는 것도, 입을 것을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바라옵건데 하느님의 집을,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의 힘을 얻으려는 집을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특히 멀리 서독에서 보내주신 성금에 눈물겨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여기 익산공소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넘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교구내의 가톨릭 단체 정착촌인 고창의 동혜원, 함열의 상지원, 삼례의 익산공소, 김제의 신암공소 형제 자매들을 대표해서 이 글을 드립니다.

(김제본당 신암공소 회장, 가톨릭 자조협회 상무 이사)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④ 4577)

축 결 혼

이 덕희 삼남 재수 (요왕)
김 영기 장녀 희숙

주례 김환철 신부

결혼 일시: 76.1.25. 11시 30분
장 소: 전 동 천 주 교 회

◎연탄 가스 배출기를 써보세요.
가스때문에 고민하세요?
방이 따뜻하지 않아요?
방이 습기가 차세요?

연탄 직매소

이영희(다두)

☐전동성당 골목 전화 ④8466
*외판원 배달원을 모집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한 시간

대담자 : 한 상 갑

.....전주 교구는 전국 최우수 교구

□ 전주교구를 어떻게 보시는지?

● 한마디로 제일 부럽다.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하나로 단합된 모습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구다. 위치로 보아 서울이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부끄럽게 여긴다.

.....사랑을 행동으로 증거해야

□ 전주교구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 김주교님도 사목교서에서 지적하신대로, 그리스도 안에 일치 단결해서 사랑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여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반공 무장해야

□ 70년대의 한국 신자들이 신앙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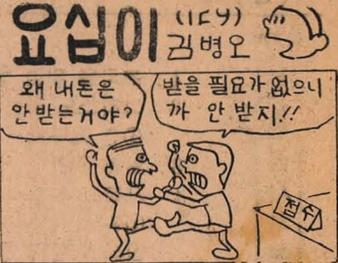
● 70년대 후반기는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의 시기였다. 국제정세나 주변국가의 정세 등으로 보아 공산화의 위협이 4~5년 후에는 절박하게 닥쳐 오리라고 본다. 우리에게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왜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가? 무조건 반공이 아니라 가톨릭의 생활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교회 자체가 생활을 쇠신해서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정신적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것을 줄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을 줄 때, 공산주의와 싸우는 정신무장이 되어 간다.

.....의롭고 밝은 사회는 정치에 달려 있어

□ 그간 천주교회는 진리와 정의, 자유를 위해서 발언하고 기도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정치문제에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 현대세계 사목현장에서조차 지적하듯이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동했을 따름이다. 그렇게 하는 일이 사회를 보다 의(義)롭고 밝게 하는 일이고, 의롭고 밝은 사회에서만 국민 모두는 행복될 수 있다고 믿어 발언하고 기도했다.

의롭고 밝은 사회는 정치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치문제에도 관여할 수 밖에 없었다. (文責 在記)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고버)

조용하고 아늑한 휴게실

등심다실

심정숙 (마리안나)

● 신탁은행 전주지점 앞 (③ 9451)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 JAR등

電話주문



즉시配達

綜合電子

전주 용궁 (舊 광주지행) 앞
김종환(원선시오) ③ 3332

직원모집

모집인원:남자 약간명
자 격:만 28세 미만의 병역 필한
고졸이상자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1부(사진첨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병역증명서 1부

서류마감:1976.1.26

전형방법:면접

면접일시:1976.1.27 오후 2시

1976. 1. 18

※기타 자세한것은 당 조합에 문의바람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한수옥

타자기 수리

전주 뉴 타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농동 605-1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④ 6 6 6 4

타자수리, 쿼입알신, 수시검정

김용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재단사 정병준 (정아우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 은행 앞

전화 ④ 3 5 1 9

